



세상의 구속

-대니얼 저스터

최근에 저는 영국의 저명한 신약학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의 토론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대체신학” 지향적이었습니다. (대체신학: 교회가 지금 이스라엘의 의미, 하나님의 진짜 이스라엘의 의미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택 받은 백성 신분을 주장할 수 없다) 오랜 시간을 들여 많은 본문을 살펴보았지만, 그는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끝나갈 무렵, 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아께 돌아서면 그것은 세상 나라들의 회심으로 이어질 것이며, 진정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구속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제 소망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대환난 후에 열방의 대대적인 회심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 (**계 16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놀랐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에게 분명하지 않은 데에 놀랐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도 가르친 적이 없으며 이 시대 마지막에 대해 비관적인 시각을 가진 교회 교사들과 함께 양육되기는 했어도 말입니다. 어쨌든 성경본문들은 우리에게 성경적 소망이 세상의 구속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선지서와 시편에서 이것을 보여주는 본문들로 여러 페이지를 가득 채울 수도 있습니다. 이와 다른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본문을 몇 군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영광스러운 미래

이사야 2장이 가장 놀라운 장입니다. 이 장은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것이며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열방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어마어마합니다. **이사야 11장**은 메시아께서 열방의 깃발이시라는 사상으로 똑같은 소망을 거듭 말합니다. 자연계, 동물왕국조차 새로운 차원의 평화에 이를 것입니다.

이사야 45장은 때때로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 어쩔 수 없이 예슈아께 무릎 꿇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으로만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이런 비관적인 시각이 불가능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빌립보서 2장은 이 약속을 거듭 말하며 이것을 예슈아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3 “나라들은 네 빛으로 ... 나아오리라.” **이사야 65장, 아모스 9장, 미가 4장**과 시편의 많은 장이 집합적인 사람들인 열방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것이라는 소망을 거듭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곤경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슈아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스라엘과 열방으로 확장되는 것이 결국 세상의 구속이라는 이 목적에 이를 것임을 마음에 새기도록 합시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세르 인트레이터가 마지막 때에
성령이 부어져 젊은이들을 통해
세대를 이어 내려온 병의 치유가
일어나며 성령의 역사가 활발해 질
것에 대해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를 클릭하여 시청해 보십시오!

자막: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